

舊蘇 7개 저소득국, IMF 및 세계은행이 빈곤퇴치계획(PRSP) 추진 결정

- IMF 및 세계은행은 '02년 2월 21 ~ 22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키르기즈,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7개 CIS 저소득국에 대해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외채관리능력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해 빈곤퇴치 계획(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 PRSP)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확대 HIPC Initiative¹⁾ 적용을 통한 외채경감계획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세계은행, IMF, E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7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사회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이 겪게될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였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함
- PRSP의 대상이 될 이들 7개국은 1995년에 1990년 대비 실질 GDP가 절반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부패 만연,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최저 타지키스탄 158달러에서 최고 아제르바이잔 652달러 수준임

1) IMF와 세계은행은 1996년 9월 빈곤국들에 대해 외채경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 HIPC Initiative)을 도입하였으며, 1999년 9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외채경감규모를 확대하고 외채경감을 빈곤퇴치와 연계토록 하여 종전 HIPC Initiative를 보다 확대(enhanced HIPC Initiative)함. 확대 HIPC는 ①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DA)의 양허적 지원 및 IMF의 빈곤퇴치 성장금융(PRGF) 수혜 적격국가로서, ② 전통적인 외채경감조치에 의해서는 외채관리능력을 회복할 수 없고, ③ 빈곤퇴치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이행한 실적이 양호한 국가를 지원하게 됨. 한편, 상기 CIS 7개국은 모두 IDA 적격국가이며,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6개국은 PRGF 적격국가임

CIS 7개국의 GDP 추이

구 분	실질 GDP 증가율			실질 GDP 지수 ¹⁾	1인당 GDP
	90~95 평균	95~00 평균	01 추정		
아르메니아	-11.5	5.2	7.5	51	505
아제르바이잔	-14.9	7.1	8.5	52	652
그루지야	-19.7	5.8	3.9	32	567
키르기즈	-10.8	5.6	5.0	65	263
몰도바	-13.9	-2.5	5.0	33	360
타지키스탄	-18.9	2.9	10.0	31	158
우즈베키스탄	-2.5	3.3	3.8	101	561
7개국 평균 ²⁾	-13.2	3.9	6.2	52	438
러시아	-8.5	1.3	5.8	61	1720
CIS 평균 ²⁾	-11.3	3.3	6.6	..	738

주 : 1) 1989 = 100 기준임

2) 단순평균치임

자료 : IMF and World Bank, Poverty Reduction, Growth and Debt Sustainability in Low-Income CIS Counties, Feb. 2002

- 또한, 1996년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소득 불평등 정도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9·11테러사건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인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향후 교역 및 외국인투자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번 세미나에서 해당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채권단 등은 PRSP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기로 함

< 해당 7개국 정부 >

o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를 위해 선도적 역할 수행

· 부패퇴치와 사업환경개선

- 거시경제 안정 및 대외거래 활성화
- 공공관리 강화, 에너지부문 개혁,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개혁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사회적 투명성 및 개혁작업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국제사회의 지원 유도

< 국제금융기구 >

○ 금융지원 및 정책자문 등을 통해 해당국의 경제성장을 지원

○ 보다 양허적인 금융지원 확대

- IFC 및 MIGA 등의 신속한 금융지원
- PRGF, IDA 등 양허적 금융지원 확대

○ 기술적 지원 및 정책자문 확대

- IMF, 세은, ADB 등의 통화정책 및 예산운용 등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 확대

< 채권단 등 >

○ 파리클럽의 나폴리조건에 따라 필요시 채무경감

< 역내국간 >

○ 역내무역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한 협력강화를 위해 Caucasus, Central Asia 등 역내국간 partnership 구축 필요

· 역내 분쟁 축소

PRSP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내용 요약

구 분	역할분담 내용
해당 7개국 정부	부패 축소, 빈곤층 부양 등 사회복지 및 안전망 확충, 신규 외채 증가 억제 등 경제개혁 계획 추진
국제·역내금융기구	해당 7개국에 대한 금융·기술지원, 정책 자문 등 지원 확대
채권단 등	보다 양허적 조건의 금융지원, EBRD의 지원 확대, 필요시 채무 경감 등 금융지원 확대, 해당국 빈곤퇴치계획 협조
역내국	무역·운송, 수자원·에너지자원 등 관련 협조 강화, 무역장벽 완화

- 한편, IMF 및 세계은행은 relatively heavily indebted countries로 분류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키르기즈, 몰도바,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을 확대 HIPC Initiative 대상에 포함시켜 외채를 최고 2/3까지 경감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o 참고로, 2001년 12월 말 현재 HIPC는 아프리카 34개국, 중남미 4개국, 아시아 3개국, 중동 1개국 등 총 42개국이며, 이중 24개국이 결정시점²⁾에 도달(이중 4개국은 완료시점에 도달)하였으며, 14개국이 결정시점에 도달하기 위해 경제개혁과 빈곤퇴치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o 2001. 12. 말 현재 HIPC에 대한 명목 외채경감액은 366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2) 고채무빈국 정부가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3년간의 포괄적인 빈곤퇴치계획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채규모가 자체 관리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 외채경감조치를 약속받는 시점이며, 완료시점(completion point)은 결정시점 도달 후 3년간에 걸쳐 이전에 정한 구조개혁정책을 이행완료한 시점으로 결정시점에서 약속한 외채경감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임. enhanced HIPC Initiative하에서는 유동 완료시점(floating completion point)를 도입하여 고채무빈국 정부가 빈곤퇴치계획을 빈곤을 퇴치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관리가능한 3~4개 분야로 집중토록 하고 그 정책의 시행정도에 완료시점 도달을 연계하므로써 그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함

지역별 고채무민국 현황

(2001년 12월 말 현재)

지역별	국가명
아프리카 (34개국 ³⁾)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 콩고(인민),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토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중남미(4개국)	볼리비아, 가이아나,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시아(3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중동(1개국)	예멘

주) 2000. 12. 말 대비 코모로 추가

자료 : IMF and World Bank, Grouping of HIPC's Under the Enhanced HIPC Initiative, Jan. 2002

- 국가 및 정부보증채무가 총 43억달러에 달하는 이들 5개국은 외채상환재원의 마련이 용이치 않은 실정이며, 리스케줄링(flow rescheduling³⁾) 등 외채상환부담 경감이나 경제개혁,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기초적인 보건·교육 등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그루지야, 키르기즈, 몰도바, 타지키스탄의 경우 재정수입 대비 현재가치 기준 외채의 비율이 250%를 초과하고 있으며, 키르기즈는 현재가치기준 외채규모가 수출의 150%를 상회하여 세계은행, IMF의 외채부담 능력(debt sustainability) 기준을 벗어나 있음
- 그러나, 외채경감을 위해서는 이들 5개국 외채의 14%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HIPC Initiative 참여가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서는 유인책으로서 파리클럽이 러시아에 대해 외채를 경감하고 동 금액만큼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대해 외채를 경감해주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임

3) 채무재조정 일정기간 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해 이자율 인하, 상환기일 연장 등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것임

CIS 5개국의 외채관련 주요 지표

(2000. 말 현재)

(단위 : %)

구 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키르기즈	몰도바	타지키스탄
수출액 대비 현재가치기준 외채 비율	135	128	201	139	133
재정수입 대비 현재가치기준 외채 비율	177	356	586	380	432
수출액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11	10	23	15	10
재정수입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16	36	26	42	35

자료 : IMF and World Bank, Poverty Reduction, Growth and Debt Sustainability in Low-Income CIS Counties, Feb. 2002

- 한편, 런던 세미나에 이어 3월에는 이들 7개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그룹이 구성될 예정으로 있으며, 4월경 워싱턴에서 이들 7개국에 대한 PRSP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및 구체적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할 계획임
- o 파리클럽은 이와 별도로 키르기즈가 요청한 채무감면안에 대해 승인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임